

“신안 도초도로 피시오세요”... ‘섬 수국축제’ 개최

16-25일...1004만 송이 토양 산도 따라 형형색색 주낙어법 인기 ‘섬 간재미축제’도 16-18일 열려

신안군이 수국의 섬 도초도에서 ‘섬 수국축제’를 개최한다. 신안군은 “섬 수국축제가 ‘배로 가는 1004만 송이 수국축제’라는 주제로 16-25일 10일 간 신안군 도초도 일원에서 진행된다”고 12일 밝혔다.

축제 기간 수국정원과 환상의 정원(명품 팽나무 10리길)에서 토양의 산도에 따라 다양한 색을 나타내는 형형색색의 탐스러운 1004만 송이 수국을 감상할 수 있다.

군은 올해 초 개관한 총면적 67㎡ 규모

의 수국센터를 방문객에게 휴게공간으로 제공하고 1층 전시실에서는 수국을 주제로 한 유명 작가의 작품을 전시할 계획이다.

환상의 정원은 2020년 전남도 도시숲평가 대상, 2021년 산림청 가로수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으며 전국에서 기증받은 팽나무 716주가 장관을 이루고 있다.

군은 지난해 10월 한국기록원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 관내 단위 면적 당 최다 수국 보유를 인증받았으며 기네스북 등재도 추진할 예정으로 명실상부 대한

민국 수국의 섬으로 불려도 손색이 없을 정도다.

이와 함께 오는 16-18일 3일 간 도초도 바다 위 수국정원에서 ‘섬 간재미축제’도 열려 관광객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간재미는 비금·도초권 내에서 많이 생산되고 있으며 맛이 전국적으로 뛰어난 수산물 중 하나로 군은 매년 도초도에서 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섬 간재미축제는 간재미 조형물 제작을 시작으로 국립오페라단의 축하공연, 간재미 냉두부면 나눔행사, 공연과 미식을 한꺼번에 즐길 수 있는 미식공연, 수국꽃길 걷기 행사, 수국 회화전, 수국 사진 경연, 거리공연 등 문화·전시 행사 등 다채로운 공연행사로 꾸



신안군이 16-25일 1004만 송이의 수국으로 가득한 도초도에서 ‘섬 수국 축제’를 개최한다. 사진은 신안군 도초도 수국공원 일원. <신안군 제공>

며진다. 신안 간재미는 주낙어법으로 잡아 상 처가 적고 싱싱하며 식감이 좋아 간재미 무침, 찜, 매운탕으로 인기가 많다.

제철에 잡힌 간재미는 단백질 등 영양분도 풍부해 병후 회복기나 허약체질에 영양 보충식으로 좋다.

신안군 관계자는 “섬에서 치러지는 행사인 만큼 관광객들이 차를 놓고 방문해도 불편함이 없도록 선박과 순환버스 운행을 대폭 증편해 교통편의를 제공하겠다”며 “다양한 행사를 준비해 섬 수국축제가 성황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안군 도초도는 행정안전부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섬진흥원, 한국관광공사에서 공동으로 선정한 ‘2023년 찾아가고 싶은 여름 섬’에 선정됐으며 섬 특색과 계절이 연상되고 맞춤형 테마에 어울리는 섬으로 여름철 피서지로 각광 받고 있다. /신안=양훈기자



해남군이 저탄소 비 논물 관리기술 보급 시범사업 대상지를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땅콩월도친환경 영농조합이 산이면서 손모내기틀 하고 있다. <해남군 제공>

“농업도 탄소중립” 해남군, 저탄소 비 확산

논물 관리기술 보급 시범사업 확대...‘맞춤형 교육’도 병행

해남군이 ‘저탄소 농업’ 확산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해남군은 12일 “계곡면 일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저탄소 비 논물 관리기술 보급 시범사업을 마산면까지 확대해 뜬심 일원 친환경 단지 107.6ha에 시범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저탄소 비 논물 관리기술 보급 시범 사업은 지난해 처음으로 계곡면 1264

ha, 552필지 면적에서 80여개 농가가 참여해 비 재배 시 발생하는 온실가스(메탄)를 감축하기 위한 감축계수 개발과 논물 관리기술 보급 등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마산면 연구리 학의영농조합 법인에서 뜬심 일원에도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으로, 모내기 단계에서부터 현장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군은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탄소 감축 필요성을 공감할 수 있도록 맞춤형 농가 교육도 병행할 예정이다. 민간기업인 땅콩월도친환경 영농조합에서도 산이면과 현산면에 기후변화 대응 연구 시범포를 운영하는 등 저탄소 기능성 쌀 생산을 위한 관심이 확산되고 있다.

저탄소 농업은 농업 생산과정 전반에 투입되는 비료, 농약, 농자재 및 에너지 절감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영농 방법 및 기술로, 농업부문 탄소중립 실현에 있어서 필수적인 부분이다. /해남=박희용기자

민주당 목포지역,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추진

김원이 의원 “올해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

더불어민주당 목포시지역위원회는 12일 “전남 지역위원회 사무실에서 전남 권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건립과 관련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책간담회에는 센터 건립을 건의하기 위해 건립추진위원회에서 최영섭

위원장과 위원, 허동준 후원회장 등이 참석했으며 민주당 목포시지역위원회 김원이 국회의원, 전경선 전남도의회 부의장, 조옥현 교육위원장, 최선국 보건복지환경위원장, 최정훈 전남도의회 의원이, 목포시의회에서는 최원석·

최지선 의원 등이 참석했다. 최영섭 건립추진위원장은 “센터 건립 예산 10억원이 부족해 좌초 위기”라며 예산 증액을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국회의원은 “공공과 민간 자원을 포함한 모든 노력을 다해 올해 중 반드시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목포=정해선기자

진도군, 여성농어업인 문화활동비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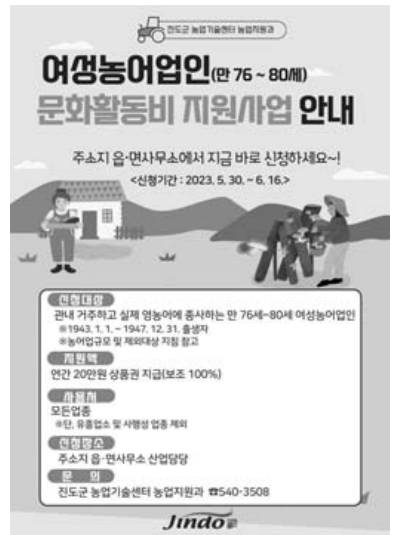
1인당 20만원...만 80세까지 확대

진도군은 12일 “여성 농어업인들에게 문화활동비로 1인 당 2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문화활동비 지원은 문화적 여건이 열악한 농어촌지역의 만 20세 이상부터 75세까지의 여성 농어업인들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만원 한도의 이용권 카드를 발급하고 있는 사업이다. 특히 군은 경제적 차별과 문화적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만 70-80세의 여성 농어업인들에게도 추가로

지원을 진행한다. 지원 대상은 관내에 1년 이상 거주하고 농·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대상자가 오는 16일까지 거주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농협군지부와 지역농협 등에서 진도아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문화활동비는 유희·사형성 업종을 제외한 영화관, 안경점, 미용원, 식당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단, 사업자 등록과 전업적 직업, 농어업인의 자녀로 고등학교·대학교·대학원에 재학, 문화누리 바우처 카드 선정자, 농어업 이외



소득이 3천700만원 이상인 사람은 지급이 제외된다. /진도=백세권기자

윤병태 나주시장 “한국에너지공대, 국가가 지원해야”

산업 경쟁력 확보·국가 에너지 안보 차원서 설립 개교 2년차 불구 獨·美 등 연구기관과 협업 성과

정부의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출연금 축소 움직임에 대해 윤병태 나주시장이 국가적 필요와 특별법 제정을 통해 설립된 대학을 법에 따라 국가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12일 나주시에 따르면 윤병태 시장은 최근 “한국에너지공대는 단순 대학이 아니다”며 “에너지 분야에 취약한 국가 산업 경쟁력 확보와 에너지 대전환 시대 국가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설립된 인재양성대학”이라고 강조했다.

윤 시장은 또 “한전 적자 구조는 근본적으로 에너지 수입 가격이 상승하는데 비해 국민 경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그동안 판매 가격 인상을 억제해 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한전 적자 규모가

31조원에 이르는데 반해 올해 한전의 에너지공대 출연금 계획 규모는 1천588억원 수준으로 대학 설립 과정에서 불가피한 예산 지원을 한전 적자 원인으로 몰아가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교직원 보수 과다 지급 등 대학 측의 방만 운영 의혹에 대해서도 “타 대학에 비해 교직원의 보수가 다소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수도권이 아닌 지방 생활에 있어 불이익이나 어려운 점을 해소하기 위해 사실은 지자체가 나서서 지원하는 것으로 봐야한다”며 “이를 위해 전남도와 나주시가 10년간 매년 100억원씩을 출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에너지공대 특별법에 따라 국가가 에너지공대를 운영할 책임이 있

다. 해당 법 5조에는 산업부 장관과 한전이 대학을 지원·육성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에너지공대는 2025년까지 학생, 교원, 시설 등 편제를 완성할 계획으로 시설 확충을 위한 투자가 대단히 중요한 시기로 국가적 필요와 결단, 법에 의해 설립된 대학을 국가에서 책임지고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시장은 “에너지공대는 지난해 신입생 107명 중 104명이 재학 중으로 신설 대학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며 “개교 2년차에 불과하지만 독일 프라운 호퍼, 미국 MIT,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원 등 세계적인 연구기관들과의 협업을 추진 중인 에너지공대가 꼭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제때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나주=정준환기자

완도군, 농특산물 유통센터 건립...‘소비 활성화’ 기대

안정적 출하·가공·유통 체계 마련

완도군이 농특산물 복합유통센터가 건립돼 소비 활성화와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전망이다.

12일 완도군에 따르면 최근 ‘완도자연그대로’ 농특산물 출하, 가공, 유통을 책임지는 복합공간인 완도농협 농특산물 복합유통센터 준공식을 가졌다. <사진>

준공식은 신우철 완도군수, 윤재갑 국회의원, 허궁희 완도군의회 의장, 군의원, 사회·기관단체장, 농업인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 경과보고, 감사패 전달, 테이프 커팅식 등이 진행됐다.

“완도농협 복합유통센터”는 2021년도 국가균형발전 특별사업 ‘농촌자원 복합 지원사업’에 선정돼 총 사업비 20억원(국비 10억원·군비 5억원·자부담 5억원)을 들여 완도를 축적리 농공단지 4천241㎡ 부지에 복합유통



센터, 저온 저장고, 사무동 등을 갖췄다.

신우철 군수는 “농특산물 복합유통센터가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유통망 구축으로 농특산물 판로를 더 넓힐 수 있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며 “군에서는 철저한 품질 관리로 더 안전하고 신선한 농특산물이 국민 자부담 5억원)을 들여 완도를 축적리 농공단지 4천241㎡ 부지에 복합유통

센터, 저온 저장고, 사무동 등을 갖췄다.

김미남 완도농협조합장은 “유통센터가 완도를 대표하는 산지 유통 조직으로서 자연그대로 농법으로 생산한 농산물을 취급 확대와 저장 및 상품화 시설 구축으로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완도 농특산물의 브랜드화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완도=윤보현기자

함평군, 양파 기계수확 시연회 성료

내년까지 32억 투입 ‘기계화’ 추진...노동력·작업비 절감

함평군은 “군 농업기술센터가 해보면 대창리 일원에서 최근 양파 기계화 우수모델 육성을 위한 양파 기계 수확 시연회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행사는 양파 재배농가, 군청, 농협 등에서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해 양파 줄기 절단기·자주식 수확기를 이용한

토백 수집 과정을 참관했다.

현재 농촌은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인력난이 심해지고 있으며 양파의 경우 수확 시기가 6월 초에 집중돼 있어 인력 확보를 위한 인건비가 해마다 폭등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군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오는 2024년까지 사업비 32억원(국비 16억원)을 투입, 양파 전 과정 기계화 우수모델 육성 사업을 추진해 기계화 면적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양파 재배 전 과정을 기계화할 경우 관행 대비 노동력 68.8%, 작업비 46.7%가 각각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은하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양파 기계화 사업을 통해 농가의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농업인 소득 증대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함평=김연수기자